

플레하노프(Georgii Valentinovich Plekhanov, 1856~1918) 와 러시아 맑스주의의 理論的 基礎*

李 仁 浩

(서양사학과 교수)

게오르기 발렌티노비취 플레하노프를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창시자라고 보는 견해에는 異論이 없다. 맑스주의 理論家로서의 그의 권위와 명성은 비단 러시아 혁명세력 내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사에서나 러시아의 철학사상사에서나 그는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플레하노프는 강단이나 지상을 통해서만 자기 이론을 설파한 “합법적” 맑스주의자가 아니었다. 1883년 혁명적 망명객으로서 <노동의 해방>(Osvo-bozhdenie Truda)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러시아인 맑스주의 이념조직을 창립한 이래 그는 1917년 전제정권 몰락 이후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있을 때까지 전 생애를 망명객으로 지내며 러시아에서의 맑스주의의 승리를 위해 투쟁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플레하노프는 혁명 주도 세력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혁명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배신자와 反革命 분자라는 지탄까지 모면할 수 없게 된 그는 머지 않아 자신도 그 악명높은 포르트-파벨 요새 속에 자기의 후배동지들에 의해 투옥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¹⁾ 자기 가슴은 사상적 씨앗에서 배태된 혁명의 귀추에 대해 깊은 회의와 실의에 잠긴 채 1918년 5월 그는 핀란드의 한 요양소에서 명예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플레하노프가 특별한 역사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가 추구했던 혁명적 이상과 인간적 패배 사이에 빚어진 이러한 비극적 모순 때문이다. 反맑스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통파 맑스주의를 고집해온 플레하노프의 이러한 비참한 종말은 바로 그가 받들었던 맑스주의 이념체계 자체에 대한 고발이요 증언이었다. 서방의 선진국들에서 개량주의가 혁명적 맑스주의의 성공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렸는가 하면 맑스의 사회주의 혁명론은 러시아와 같은 후진국에는 더더구나 적합치 않은 이론임이 플레하노프의 좌절을 통해 입증된 것이었다.²⁾

이와 대립되는, 소련의 레닌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잘못은 전적으로 플레하노프 개인에게

* 이 글은 연구논문이 아니라 “19세기 유럽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하는 소개서의 한 부분으로 쓰인 것임을 밝힌다.

1) Samuel H. Baron, Plekhanov. *The Father of Russian Marx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 353.

2) 같은 책 p. 361.

있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레닌과 결별하고 멘체비즘의 오류에 빠졌던 그는 혁명운동에서의 주관적 측면과 당의 역할을 과소평가했으며, 사회발전 과정에서의 의식과 이념이 경제에도 역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었다.³⁾ 그는 맑스주의의 해석에서 부분적 오류를 범했을 뿐더러 러시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상에 충실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비평가들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사고방식에서 그의 치명적인 결함을 찾는다. 맑스주의 이론을 실패하는 데 있어 그는 맑스 자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경직성을 드러내었고 따라서 러시아의 현실에 맞게 맑스주의 이론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⁴⁾ 그에게는 맑스의 초기 저술들이 알려지지 않았았으며 맑스 자신보다도 주로 엥겔스를 통해 변증법적 유물론과 史的 유물론을 수용하고 정립했었다는 데서 그의 실패에 대한 설명을 찾기도 한다.⁵⁾ 그러나 결국은 그 자신을 패배시켰을 뿐 아니라 맑스의 이념을 파괴하고 대체하게 된 소련의 변태적 국가 사회주의 이념체계를 탄생시킨 데 대한 그의 책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⁶⁾

이러한 여러가지 해석들은 각기 그 나름대로의 주창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맑스주의 이념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큰 논쟁속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는 시비를 가리는 실마리를 잡을 수조차 없다. 짧은 소개의 글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플레하노프라는 한 개인과, 제정 말기의 러시아 사회와, 맑스주의라는 이념체계의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으며 그 과정 속에서 그 세가지가 다 어떻게 변하고 발전했는가를 조명해 보는 일이다. 맑스주의의 사상적 보따리 속에서도 어떠한 측면이 어느 때 왜 플레하노프에 의해 특별히 강조되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물어봄으로써 플레하노프가 “정통파” 맑스주의자였느냐 아니냐 하는 가공적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제정말기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 청년혁명가로의 출발

개인적 배경으로 본다면 플레하노프가 혁명가의 길을 걸어야 했을 특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1856년 러시아 중십부 탐보프주의 타타르계 지방지주의 말아들로 태어났다. 관직과 군직에 봉사해온 집안의 전통에 따라 그는 보로네즈 사관학교에서 중등교육과정을 마쳤고 1873년 수도 상트 페테르부르그에 있는 콘스탄티노프스크 고등사관학교에 진학했다.

3) B.A. Chagin, *G.P. Plekhanov i ego rol' v razvitsii Marksistskoi filosofii*, Moskva-Leningrad, 1963, pp. 67, 165-167.

4)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3 vols., Oxford, 1978, II, p. 344.

5) James S. Allen, "Editor's Preface," *Fundamental Problems of Marxism by Goerge V. Plekhanov*, London, 1969, p. 13.

6) Kolakowski, 앞 책, p. 353.

유난히 어머니와 가까웠던 그의 생애가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파멸의 길로밖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접어든 것은 러시아 역사의 바로 그 시점에 17세의 청년이었던 그가 고향을 떠나 수도에 홀로 오게 되었다는 우연적인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던 듯하다. 한 학기를 마친 후 사관학교에서 자진 퇴학한 그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광업전문학교에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전제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보다는 비판적 인텔리겐치야 사이에서는 훨씬 더 떳떳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던 생산자로서의 생애로 들어서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첫 학년에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될 만한 좋은 성적을 올렸던 그가 2학년 말에는 출석 미달로 제적당했다. 1874년에 있었던 대중운동으로서의 인민주의 운동의 제 1차 물결이 농민들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쳐 실패로 돌아간 직후 전제정권과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암투의 소용돌이 속으로 플레하노프는 흡입되어 들어갔던 것이다.

인민주의 운동의 여러 갈래 가운데서도 플레하노프가 가담했던 것은 대중의 선동을 통한 사회혁명을 주창하던 바쿠닌 계열이었다. 〈土地와 自由〉(Zemlia i Volia) 지하조직의 창립회원이 된 플레하노프는 1876년 12월 카잔성당 앞에서 열렸던 정치범 학대에 대한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주동함으로써 그때부터 계속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는 러시아 농민의 사회주의적 성향과 혁명적 잠재력에 대해 기대를 거는 전형적인 인민주의자였으나 개인적 테러행위나 소수의 음모를 통한 권력장악의 방법은 거부했다. 1878년 페테르부르크 지사 트레포프의 암살을 시도했던 베라 자술리취(Vera Zasulich, 1847~1919)가 배심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고 도피한 후 한층 더 팽팽해진 전제정권과의 대치관계 속에서 티호미로프(Lev Tikhomirov)가 이끄는 극렬파가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을 목표로 설정하고 〈人民의 意志〉(Narodnaia Volia) 테러조직을 편성하자 플레하노프는 자술리취와 도이취(Lev Deutsch)와 함께 〈黑色再分配〉(Chernyi Peredel)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조직을 개편했다. 토지의 공동체적 분배라는 농민사회주의 이상에 대한 재천명이었다.

조직으로도 이념으로도 〈흑색재분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심해지는 경찰의 추적 때문에 플레하노프, 자술리취, 도이취는 1880년 부득이 망명의 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고 1881년 3월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에 뒤따른 반동의 강화는 〈흑색재분배〉뿐 아니라 러시아 혁명운동 전체에 방향과 전략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요구하는 위기를 몰고왔기 때문이었다. 플레하노프가 맑스주의로 전향하게 된 것은 1880년대초 망명객으로서 파국에 직면한 인민주의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1883년 제네바에서 〈勞動의 解放〉(Osvobozhdenie Truda)이라는 이름의 맑스주의 이념조직을 창립한 그는 1917년 2월 혁명이 성공하기까지 다시는 러시아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수립하고 좌우로부터 끊임없이 닦쳐오는 위협으로부터 혁명운동의 맑스주의적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일이 그의 필생의 과업이 된 것이었다.

II. 人民主義와 〈勞動의 解放〉

플레하노프가 제네바에 망명한 후 맑스주의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맑스의 사상은 그것에 대해 호의적인 관심을 가졌던 러시아 인민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소개되어 있었으며 1875~1876년에 플레하노프는 “자본론”을 읽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⁷⁾

그도 처음에는 많은 다른 인민주의자들처럼 맑스의 유물론이 인민주의, 특히 정치적 개혁주의에 맞서 사회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바쿠닌의 사회철학을 정당화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인민주의의 고전으로 인정받게 된 라브로프(Petr Mikhailovich Lavrov, 1823~1900)의 “역사학적 서한”(1868~1869), 미하일로프스키(Nikolai Konstantinovich Mikhailovskii, 1842~1904)의 “진보란 무엇인가?”(1869)에 뒤이어 1872년에 러시아에서 번역판으로 간행된 맑스의 “자본론”이 예상 밖의 호의적 반응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조건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유물론적 토대와 자본주의의 착취적 성격에 대한 조명 때문이었다. 유럽의 자본주의와 부르조아지에 대해 전체체제에 대해서만큼이나 깊은 불신과 혐오를 느끼고 있던 러시아의 지식인들에게는 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한 맑스의 분석은 분업에 따른 인력의 해체위험을 지적하고 농민사회주의의 미덕을 찬양하던 미하일로프스키 등의 인민주의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보였다. 발리쯔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도래를 방지함으로써 러시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인민주의의 기본이념으로 굳어진 것은 “자본론”의 영향하에서였다.⁸⁾ 사실 인민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자본론”이 러시아에서 출판된 후 8년간이었다.

콜라코프스키가 지적했듯이 맑스주의로의 플레하노프의 전향은 새로운 세계관의 수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⁹⁾ 바쿠닌주의자로서 그는 이미 유물론과 무신론을 오래전부터 수용하고 있었다. 플레하노프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맑스주의를 받아들이게 한 것은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발견이었다. 1880년 러시아를 떠나기 전부터 농촌공동체에 관한 새로운 조사연구들에 나타난 통계플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인민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이론의 기반이 되고 있던 농촌공동체가 되돌이킬 수 없는 해체과정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졌었다. 유럽에 온 후 러시아에서 접할 수 없었던 많은 문헌을 탐독하고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활동을 지켜본 결과 그 의심은 러시아에도 자본주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확신으로 변했으며, 맑스주의 혁명이론이야말로 러시아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멧세지라고 믿

7) Baron, 앞 책, p.50.

8) Andrzej Walicki, *A History of Russian Thought: From Enlightenment to Marxism*, Oxford, 1980, p. 222.

9) Kolakowski, 앞 책, p. 331.

게 된 것이었다. 러시아의 혁명가들에게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길, 자본주의와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단계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가는 먼 길을 걷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플레하노프의 맑스주의로의 전향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거의 아무도 러시아에 맑스의 사회주의 혁명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지 않으려 할 때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었다.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의 저항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진영내의 반응도 그리 고무적이지 아니었다. 1882년 플레하노프가 노어로 번역하여 간행한 “공산당 선언”에 진분을 써준 맑스 자신조차도 러시아 고유의 사회주의로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¹⁰⁾ 1875~1876년 트카초프가 러시아의 후진성이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블랑키주의적 혁명이론을 주창했을 때 엥겔스는 그를 “사회주의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 몰아부쳤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혁명의 전망이 밝지 못하게 느껴지고 있던 때 맹렬한 기세를 떨치던 인민주의 혁명운동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맑스와 엥겔스는 러시아의 독특한 사정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혹시라도 러시아에서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인민주의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폭력주의적 투쟁방법을 포기하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노선을 새로 채택하려는 듯한 몇몇 젊은 러시아 망명객들의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1883년 플레하노프는 맑스 자신보다도 더 “맑스주의적”이 되는 미묘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었다. 플레하노프는 자기의 반대자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도 부르조아지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기여도 인정하는 맑스의 혁명이론이 완전무결한, 따라서 반론이나 異見의 제시가 불가능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철학체계의 한 부분임을 입증해야 되었다. 정통성을 항상 고집하던 플레하노프의 맑스주의가 다른 이론가들의 경우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폐쇄적 성격을 띠며, 강력한 결정론적 입장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초창기부터 러시아 맑스주의가 직면해야 되었던 이러한 특수한 저항적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플레하노프가 러시아 맑스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노동의 해방>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밝히는 의로운 투쟁을 하던 시기에 쓰여진 두 편의 긴 논문 “사회주의와 정치투쟁”(1883)과 “우리들의 차이점”(1885)을 통해서였다. 첫번째 논문은 <인민의 의지>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혁명세력이 남아빠진 행동강령과 전통적 행동방식을 비판적으로 재고함으로써 바쿠닌주의자나 라브로프주의자들처럼 역사의 낙오자가 되고 “후에 분열과 새로운 실망”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피하자는 비교적 조심스런 제안이었다.¹¹⁾ 러시아에서

10) Baron, 앞 책, pp. 67-68.

11) Georgi Plekhanov, *Selected Philosophical Works*, 5vols., Moscow, 1980, I, p. 106.

“사고하는 프롤레타리아”인 혁명적 인텔리겐찌야가 정치적 음모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거나와 실사 성공한다 한들 그 뒤가 더 문제였다. “토지와 자유”라는 구호하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된 인민”이 생산을 국제적으로는 고사하고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책임을 감당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는 예언적 대목에서 플레하노프는 말했다.

이러한 위협을 감안하여, “인민의 의지”가 수렴한 “임시정부”는 장악한 권력을 인민의 대표자들에게 양도하지 않고 공식정부가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두가지 대안에 적면하게 될 것이다. 성취해 놓은 “경제적 평등”이 서서히 붕괴되어감을 무관심한 방관자처럼 보고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전국적 생산을 “조직”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과업은 현대적 사회주의 정신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정부 자체의 비현실성과 노동자들 자신의 습성, 전국적 노동의 발전에서의 현재의 수준 등이 모두 장애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길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이상들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다. 단지 페루에 “태양의 아들들”과 그들의 관료들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특수신분층이 전국적 생산을 관리하도록 그러한 이상들은 조정될 것이다.¹²⁾

“사회주의와 정치투쟁”에서 플레하노프는 아직도 러시아의 혁명세력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약간은 남아있다는 듯한 조심스런 어조를 택했다. 그러나 인민주의자들의 반응은 예상했으리만큼 격렬했다. 특히 티호미로프는 플레하노프와 <노동의 해방> 집단이 혁명에 대한 배반자라는 극단적 입장을 취했으며 인민주의의 이론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西歐주의적이던 라브로프까지도 전제정권과의 대결이 지상과제인 시점에서 혁명세력내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플레하노프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¹³⁾ 플레하노프는 라브로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으로 시작되는 보다 더 긴 논문 “우리들의 차이점”을 발표하여 자기의 입장을 다시 변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상대방에게 실자리를 남겨주지 않는 격렬한 논쟁조로 쓰인 이 글은 러시아의 혁명운동이 발전해 온 경로에 대한 비판적 회고,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의 발달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시,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의 설파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티호미로프와 트카초프가 공격의 구체적 표적이 되고 있다.

플레하노프의 주장을 요약하면 역사발전, 특히 사회주의 혁명의 달성에 필요한 요건에 관한 맑스주의의 기본 명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명제들을 펴기 위해 동원된 공박과 설득의 방법이 러시아 사회와 혁명 세력의 특성과 체질에 대한 조명이 된다. 인민주의자들은 <노동의 해방> 집단이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냉담하며 부르조아지의 편을 드는 혁명의 배신자들과 비탄하고 있었다. 러시아도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것을 거침으로써만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근거에서

12) 같은 책, I, p.99.

13) 같은 책, I, p.107.

였다. 그러나 플레하노프가 볼 때 그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 징후를 설명하는 의사를 보고 병을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었다.¹⁴⁾ 러시아에서도 이제 농촌공동체는 견잡을 수 없이 붕괴되어 가고 있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순수한 동기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해도 그것이 역사의 대세로서 다가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었다. 농민들 사이에서의 계층분화는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가 없는 농업무산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토지를 독점하게 되는 소수의 지주들은 현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것이며 공업과 교통업의 발달 또한 러시아를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시켜가고 있었다. 사회는 소수의 자본가와 점점 더 증대해가는 프롤레타리아로 양분될 것이 틀림없었고 그 두 계급사이의 투쟁의 결과로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성립될 것이었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터득한 사람들은 인민주의자들과는 달리 농민의 희생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역사의 방향을 바르게 감지함으로써 자본주의로의 전환과정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고통을 가능한 한 감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이었다.¹⁵⁾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달과정은 전제체제와 봉건적 유산의 잔재 때문에 방해받고 왜곡되고 있음을 플레하노프도 인정했다. 그러나 트카초프와 티호미로프가 생각하고 있듯이 소수의 혁명가들이 음모나 테러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이제 겨우 시작된 단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정치투쟁을 통해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전제체제를 타도하고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와 힘을 합하여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는 것이었다.¹⁶⁾

앞에 놓인 일차적 과제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적대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두 계급인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이해가 일치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혁명이 부르조아 혁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부르조아지의 주도권 하에서 이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아직 미숙하고 독자적 힘의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용기도 없는 러시아의 부르조아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으므로 러시아의 부르조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의 주도하에서 이룩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혁명이 성공하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은 부르조아지였으며 프롤레타리아는 바로 자기가 도와서 탄생시킨 그 체제에 다시 맞서 싸워야 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었다.¹⁷⁾

인민주의자들에게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의 승리를 가져올 혁명을 위해 투쟁한다는

14) 같은 책, 1, pp.127-128.

15) 같은 책, 1, p.129.

16) 같은 책, 1, p.352.

17) 같은 책, 1, p.351.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리고 용납이 될 수 없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은, 플레하노프의 지적에 따르면, 강력한 부르조아 세력이 형성되기도 전에 러시아에서는 과학적 사회주의 덕분에 역사의 방향을 바로 간파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태세를 갖춘 혁명적 인텔리겐찌야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러시아의 자본주의는 늦게 시작되었으며 덕분에 서구로부터 기술과 경험을 도입해 올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의 발달의 주기와 부르조아지의 지배기간이 서구에서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컸다. 다만 그것을 전적으로 건너뛰거나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¹⁸⁾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는 서구의 프롤레타리아의 패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자본가에 의해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체험을 거침으로써만 의식화된 프롤레타리아가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도 가능해지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혁명세력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테두리와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 자신이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자동적으로 사회주의 의식을 갖게 되고 계급적 이해관계를 올바로 터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어디까지 부르조아지의 이해관계와 일치되고 어디에서부터 대립되는가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인텔리겐찌야의 임무였으며 혁명을 주도할 당의 필요성이 거기에서 대두하는 것이었다.¹⁹⁾

플레하노프가 볼 때 농촌공동체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농민에 대한 연민에 근거를 둔 감성적 인민주주의의 위험은 티호미로프식의 실속없는 혁명적 모험주의를 낳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이점은 취하되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기울고 있는 V.V.(보른쾨프의 필명) 같은 위장된 반동이론가들의 이론에 말려들으로써 실제로 전제정권의 입장을 옹호하게까지 되는 것이었다.²⁰⁾ 혁명운동, 그중에서도 특히 <인민의 의지>의 역할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론들과의 무조건의 결별”이 시급하며 바로 그것이 테러를 통해 운동에 공헌했던 혁명적 영웅 등의 추억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강령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부터 출발했던 가장 위대한 테러리스트들의 전통을 살리는 길이었다.²¹⁾

Ⅲ. 변증법적 유물론과 史的 유물론

1880년대 전 기간을 통해 러시아의 혁명운동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인민주주의의 환상을 깨뜨리고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정권과의 직접적 대결에 우선해야 될 과제라는 플레하노프의 진단은 결코 잘못된

18) 같은 책, I, p.104.

19) 같은 책, I, p.352.

20) 같은 책, I, pp.214-215.

21) 같은 책, I, p.358.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혁명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아직 세력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도 하지 않은 맑스주의와 인민주의 사이의 차이를 극구 강조하는 플레하노프의 시도는 별로 호응을 받기 어려운 것이었다.²²⁾ 외국에서 간행되어 비밀리에 러시아로 반입되는 그의 저술들을 접할 기회를 가지는 사람들 또한 얼마 되지 않았다.

플레하노프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미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에 접어들어 러시아에서 혁명적 맑스주의가 발을 붙일수 있는 현실적 토양이 마련되면서부터였다. 1890년 초 농촌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자 혁명적 인텔리겐찌야는 다시 농민들 사이에서 선전과 선동활동을 개시했으나 농민들의 “원시적 야만성과 침투하기 어려운 몽매성”은 지식인들에게 잔인한 실망을 안겨주었고 맑스주의 이론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농민대중의 보수적 태도에 비해 재무대신 위테의 산업화 계획의 진전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노동자층은 혁명적 인텔리겐찌야의 활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혁명세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인민주의 혁명씨름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레닌이 이미 1895년에는 마르토프(Iulii Martov, 원명 Zederbaum, 1873~1923)와 함께 <투쟁 연맹>(Soiuz Bor'by)을 조직하고 상트 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돌입할 수 있던 것이 두드러진 예였다.

1890년대 러시아에서 맑스주의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좁은 의미의 혁명이론으로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누구나 잠재적으로는 가지고 있던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과 러시아의 인민을 위해 완전히 자기를 바쳐야 한다는 인텔리겐찌야 특유의 도덕적 사명감 양쪽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가능성을 내포한 이론체계였다. 그러나 맑스주의가 제시하는 가능성이 컸던 만큼 그것에 대한 기대나 해석도 다양했다. 첫째로 그것은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경제분석의 틀로서 왕당파가 된 지베르나 맑스주의 경제학자 투간 바라노프스키(Tugan Baranovskii) 등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둘째로 맑스주의는 경제적 유물론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이론으로서 혁명적 낭만주의나 자코뱅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적 성향의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맑스의 역사발전 이론은 서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지 그것이 러시아에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장을 수반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반드시 혁명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²³⁾ 맑스주의가 가지는 또 하나의 매력은 지적, 도덕적 차원의 것이었다. 극단적 실증주의에 대항해서 극단적 관념론이 “예술을 위한 예술”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던 상황에서 맑스주의는 정신적 혁명의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진도된 형태의

22) Baron, 앞 책, p.135.

23) Walicki, 앞 책, pp.436-437.

종교적 신앙이 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²⁴⁾ 자기들이 인민주의자인지 맑스주의자인지를 물을 겨를이 없이 용납될 수 없는 현실을 사회주의로 대처해야 된다는 일념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있던 혁명운동의 현역들과는 달리 이론적 근거에서 맑스주의에 매혹되고 있었던 사람들은 스트루베(Petr Struve, 1870~1944), 베르자예프(Nikolai A. Berdiaev, 1178~1948), 불가코프(Sergei N. Bulgakov, 1871~1944) 등 대학을 다니거나 갓나온 지식인들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어찌 이해되고 있든간에 189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서 맑스주의는 새 세대를 휩쓰는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고 혁명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플레하노프 같은 혁명적 맑스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혁명 이데올로기로서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을 전파시키는 일이 절실했는가 하면, 그때까지 혁명운동을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인민주의 진영에서는 맑스주의의 이러한 도전을 초기에 뿌리 뽑는 일이 시급했다. 그때까지도 합법적 간행물인 “러시아의 부”(Russkoe Bogatstvo)를 기관지로 확보하고 있던 인민주의의 정진적 지주 미하일로프스키는 1892년 “러시아의 부” 및 “러시아의 사상”(Russkaia Mysl)에 실린 글에서 맑스의 “러시아인 제자들”에 대한 특별전을 선포했다. 여기에 맑스주의자들이 반발하는 글들이 나오자 1894~1895년 사이에 러시아 사상계에서는 인민주의자들과 맑스주의자들 사이에 이론적 격전이 벌어졌다.²⁵⁾ 이때까지도 러시아 경찰의 관심은 테러와 대중 선동을 통해 혁명활동을 하는 인민주의 계열의 행동과 씨름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념논쟁은 자유경제협회(Volnoe Ekonomicheskoe Obshchestvo)가 주최하는 공개 토론석상이나 아니면 흔히는 익명으로 전개되는 지상 토론을 통해 거의 공개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1893년 다니엘슨의 “개혁후의 우리경제”를 비판하는 글에서 스트루베가 맑스주의의 기본입장을 밝힌 데 이어 1894년 4월에는 최근 맑스주의로 전향한 레닌의 “누가 인민의 벗인가”가 발표되었고 같은 해 9월 스트루베는 또 “러시아의 경제발달에 관한 비판적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로 인민주의자들에게 다시 대응했다.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의 교과서의 구실을 하게 될 플레하노프의 “역사에 대한 단원론적 견해의 발달”이 벨토프라는 익명으로 발표된 것은 그해 12월 바로 이러한 논쟁의 맥락에서였다. 이 글에서 플레하노프가 중심적인 목표로 삼은 것은 러시아도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서만 사회주의로 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맑스주의자들을 경제적 결정론자들로 몰아부치려는 미하일로프스키의 견해가 전혀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그의 주관주의적 사회학의 비과학성을 공박하려는 데 있었다. 미하일로프스키 외에도 유물론도 관념론이나 마찬가지로 일방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크리벤코(S.N. Krivenko) 등이 표적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 권

24) 이인호, 「제정 러시아에서의 마르크시즘의 수용과정」, 『마르크시즘 100년, 思想과 흐름』, 서울, 1984, p. 251.

25) 韓貞淑, 「레닌의 인민주의 비판에 대한 시론적 검토」, 『釜山女大史學』, 第3輯, 1985. 12, p. 6.

의 책이 되는 이 글은 여전히 상대방을 몰아부치는 산만한 정치적 공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맑스주의 이론의 포괄적인 서술이었다. “K. 맑스의 철학적 시각과 사회적 시각”(1890), “헤겔 사망 60주기”(1891), 엥겔스의 “루트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1894)에 대한 주석, “유물론의 역사 개관”(1894) 등의 글을 통해 이미 개진되었던 그의 견해들이 “역사에 대한 단원론적 견해의 발달”에서 포괄적으로 체계화 된 것이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러시아에 자본주의가 역사적 현실로 등장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맑스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를 시정함으로써 어떤 역사 외적 도덕적 기준에 따르는 인간의 의지와 의식적 행위——그것이 혁명적 인민주의이든 국가의 개입을 선호하는 관변인민주의이든——로 역사의 자연적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창하는 모든 “주관주의 사회학”의 근거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단원론적 견해의 발달”에서 플레하노프가 강조한 것은 맑스의 경제이론과 역사이론은 그 두가지 사이에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질 뿐더러 그 두가지가 다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는 변증법적 철학체계를 떠나서 따로 이해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혁명이론은 물론 자연과학도 미학도 다 같이 이러한 철학적 총체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며 역사의 필연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런 전체적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맑스주의 원리가 철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되는 것이며 역사에 적용되면 사적 유물론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맑스주의를 변증법적 유물론이라 이름붙인 사람이 플레하노프였던 듯하다.²⁶⁾ 그가 맑스주의 이론가로서 사적 유물론에는 탁월했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

플레하노프에 따르면 맑스주의자들이 “경제적 현실”을 강조하며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도덕적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하나의 理想, 그리고 매우 명확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필연을 자유에, 경제적 힘들을 인간 理性의 힘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이상에서 출발하여 그들은 그에 따라 실질적 행동의 방향을 잡아나갔고 그것은 물론 부르조아지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메가 오면 자기의 생산물의 주인이 되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생산자들의 자의식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²⁷⁾

유물론이 물론 맑스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프랑스의 유물론자들, 독일의 고전철학, 특히 헤겔의 변증법,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복고왕정시대의 프랑스 역사가들이 모두 맑스주의 철학체계의 탄생에 기여했음을 플레하노프는 밝혔다. 그러나 드올바흐나 엘베시우스 등은 정신현상을 물질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사회환경이 사상에 미치는

26) Chagin, 앞 책, p.66. Baron, 앞 책, p.287.

27) Plekhanov, 앞 책, I, p.677.

영향을 바르게 파악했지만 역사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며,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자가당착에 빠졌으며 결국 주관주의적 사고의 원천이 되었다. 헤겔은 삶의 모든 형태에는 그것을 부정하고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요소가 배태되어 있으며, 역사는 개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전개된다 함을 보여준 데서 맑스주의 철학의 형성에 있어 공헌이 컸다. 그러나 그는 변증법을 관념론의 토대와 결부시킴으로써 결국 역사에서 필연이란 정신적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상화해 버렸다. 19세기초의 역사가들은 역사에서 계급간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했고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은 인간 해방을 위한 사회개조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자 다 결국은 불변하는 인간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관념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체제들의 결합을 극복하고 유물론과 변증법을 배합시켜 이룩한 맑스주의의 탄생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비교되는 것이었다.²⁸⁾

맑스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특히 생산수단의 발달을 통해 자연을 지배할 수 능력을 증가시켜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고 플레하노프는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역사적 변화란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의 발달에 따라 결정된다 하는 것이 유물론적 역사관의 핵심이었다. 역사에서 필연이란 물질적 조건에 뿌리박고 있었으며 자유란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역사의 법칙을 터득하고 그것을 인간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내세우는 理想의 기준은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역사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인간성”이라는 것이 고정 불변의 것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의적 세계에 대해 작용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성격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맑스의 말을 플레하노프는 인용했다.²⁹⁾

플레하노프는 맑스주의가 경제결정론이 아님을 밝히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생산력 발달의 어떤 특정한 수준에서나 그에 맞는 정치제도, 사회심리, 이데올로기적 형태들이 생성되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들간에는 항상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개별적 상황에서는 심리적 변화가 경제적 변화에 선행할 수도 있었다. 또한 예술, 철학, 미술 등 문화적 상부구조끼리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단지 그 영향력이란 사회적 조건의 유사성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³⁰⁾

맑스주의는 역사에 있어서의 인간의 역할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함을 플레하노프는 또한 강조했다. 역사가 필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르게 터득하고 그 시대와 사회의 조건에

28) 같은 책, 1, pp.612-613.

29) 같은 책, 1, p.613.

30) 같은 책, 1, pp.569-570, 683.

맞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별적 사건에는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영웅들이라도 큰 흐름으로서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이 위대한 것은 필연적으로 생성되어야 할 사회관계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계급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대변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필연의 인식에서 더욱 더 큰 활동력이 나오기 때문이었다.³¹⁾

결국 “역사에 대한 단원론적 견해의 발달”에서 플레하노프의 입장은 “우리들의 차이점”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어떤 해설자들은 플레하노프가 맑스보다도 앵겔스를 통해 헤겔이나 사적 유물론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엄격한 철학적 사유의 훈련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³²⁾ 그러나 유물론적 변증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적 결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맑스주의에 대한 그의 해석을 보다 더 간결하게 체계화해 놓은 그의 마지막 주요 저서 “맑스주의의 근본문제”(1908)를 보면 플레하노프가 자유와 필연의 문제를 결코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음이 나타난다.³³⁾ 그가 필연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었던 데는 발리프키가 지적한 대로 오히려 심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중의 고통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 자본주의를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만이 사회주의의 승리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존재론적 필연임을 입증해야 되었던 것이었다.³⁴⁾ 추악한 자본주의적 현실을 현실로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심거리였는가는 그가 현실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벨린스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느꼈던 점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가 요청하는 행동을 함에 있어 자유와 필연, 필연에 대한 승복과 혁명적 부정, 탁월한 개인의 의지적 행위와 민중의 자발성 등 서로 대치되는 개념과 가능성들 사이에서 그때그때 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지적 차원의 일만이 아니며, 맑스주의 이론에의 달통이 결코 올바른 해결에 대한 보장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한 사실은 플레하노프가 인민주의 다음으로 직면하게 된 다른 도전들—수정주의, 경제주의, 레닌주의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IV. 수정주의와 경제주의의 극복

플레하노프에게 1890년대 후반부는 오래 기다렸던 승리의 시기였다. 1894년 이래 인민주

31) 같은 책, I, pp. 568-569.

32) Kolakowski, 앞 책, p. 341.

33) Plekhanov, 앞 책, I, p. 569. *Fundamental Problems of Marxism* by George V. Plekhanov, pp. 77-78, 91-92.

34) Walicki, 앞 책, p. 417.

의자들과의 논쟁이 거의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혁명이론으로서의 맑스주의가 널리 소개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그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으로서의 플레하노프의 공헌과 권위는 드디어 국내외에서 인정되었다. 그와는 별도로 러시아 내에서 혁명 운동을 하던 레닌도 <노동의 해방> 선배들과의 연계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새세대 사회민주주의 조직에 <노동의 해방 연맹>(Soiuz Osvobozhdeniia Truda)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상트 페테르부르크뿐 아니라 모스크바, 키예프, 오뎃사, 티빌리시, 사마라, 보로네즈 등 러시아 각지에 사회민주주의 조직이 결성되었다. 1895년에는 전국적으로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의 수가 5만이었던 데 비해 1896년에는 페테르부르크市에서 한번에 3만 5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1896년에 열린 인터내셔널 제 4차 총회에는 플레하노프, 자술리취, 악셀로드뿐 아니라 러시아 내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대표해서 스트루베와 포트레소프(A.N. Potresov)가 같이 참석했다. 혁명적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드디어 러시아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었다. 1898년에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창당이 민스크에서 선포되었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탄생은 플레하노프의 승리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혁명운동의 성장과 확산은 곧 맑스주의의 이론가로서뿐 아니라 黨정책 수립에서도 최종적 결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여러 방향에서의 도전을 물고 왔다. 이미 1894년 인민주의와 논쟁을 벌이는 속에서도 레닌은 자본주의에 대한 스트루베의 해석이 자기의 해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감지하고 간접적으로 스트루베를 비판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레닌도 스트루베도 그 당시에는 인민주의자의 반발에 맞서 부르조아지와 공동 전선을 펼 필요성을 강조하던 플레하노프의 입장에 동조한 나머지 서로간의 대결을 피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방침을 채택했었다.³⁵⁾ 그러나 레닌이 우려했던 바대로 그 문제가 드디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세계 전체를 흔들어 놓은 “수정주의” 논쟁으로 터져나왔다. 이미 의회정치에 참여하고 있던 독일의 사회민주당 내에서 혁명적 맑스주의 노선을 포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1899)의 발표로 표면화된 이 논쟁은 결국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에는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두 갈래의 대립되는 경향이 절충되지 못한 채 계속되어오고 있었음을 선명히 부각시켰다. 카우프키, 클라라 제트킨, 로자 룩셈부르크는 모두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대해 혁명적 맑스주의 입장을 옹호했으나 공격의 치열함에서 플레하노프를 능가한 사람이 없었다.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운동이 전부인 것이다”라는 유명한 공식을 내세운 베른슈타인은 헤겔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그가 해석하고 있던 맑스주의의 결정론적 요소를 비판하며 사회발전에 관한 맑스의 예

35) 韓貞淑, 「스트루베의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와 레닌(1894~1895)」, 『李元淳教授華甲記念史學論叢』, 1986. 11, p. 812.

측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임을 주장했다. 1888년부터 영국에서 살고 있던 그에 따르면 자본의 집중, 계급의 양극화, 그리고 혁명적 변화를 통한 기존 질서의 타파의 불가피성을 주창하는 맑스의 혁명이론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의 과제는 재산과 정치제도를 점진적으로 사회화해 나가는 데 있었으며 이미 현실적으로 그러한 개량주의를 실천에 옮기고 있던 사회민주당은 이제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던 혁명이론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 함이 베른슈타인의 결론이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수정주의를 공식으로 배격했으나 베른슈타인 자신은 당에서 축출되지 않고 계속 영향력을 증가해갔다. 플레하노프가 볼 때 이것은 맑스주의 혁명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배반이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던 카우프키 자신에 대해까지 의심을 품게 하는 일이었다.³⁶⁾ 수정주의는 현실에 대한 진단의 잘못에서 나온 오류로서만이 아니라 철학적 기저에서부터 배격되어야 할 위험이었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진영내에서도 신칸트주의가 새로이 관심을 모으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던 플레하노프는 맑스주의 내에서 헤겔의 결정론적 영향을 비판하는 베른슈타인의 이론은 칸트에 의존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 속에 부르조아적 의식구조를 침투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³⁷⁾ “물 자체”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은 종교적 신앙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압박받는 계급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도구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칸트주의는 또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필연적 귀결로 보는 대신 의지적 행동을 통해 접근해 가기는 하되 결코 완전히 달성될 수는 없는 이상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결국 혁명의 길을 포기하고 개량주의나 기회주의로 흐르도록 만들었다.

플레하노프는 개량주의로 혁명적 맑스주의를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베른슈타인이 제시했던 현실분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중산층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처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된다 해도 그것이 계급 갈등의 심화에 대한 반증이 될 수는 없었다. 프롤레타리아의 상대적 빈곤은 결코 감소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들이 조합주의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계급적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직이나 사회민주당 내의 일부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 때문이었다.³⁸⁾

플레하노프는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적 발달의 촉진과 정치적 민주화는 사회주의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단계였고, 그 단계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부르조아지와 협동하여 정치적 투쟁을 감행한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 왔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의 달성이라는 맑스주의 혁명이론의 핵심에 대한 포기나 수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보았듯이 플레하노프에 있어 맑스주의 혁명이론은

36) Plekhanov, *Selected Philosophical Works*, II, pp. 340-341.

37) 같은 책, II, pp. 367, 378. Chagin, 앞 책, p. 11.

38) 같은 책, II, pp. 372-373, 565-566.

단순히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만들어졌던 혁명 전략으로 현실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맑스주의를 칸트주의와 접합시키려는 베른슈타인의 시도는 카우츠키가 생각하듯이 누가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자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단순한 사건으로 안일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플레하노프가 볼때 “누가 누구를 매장할 것인가,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를, 아니면 사회민주주의가 베른슈타인을 매장할 것인가”라는 사회주의의 존망에 관한 문제였다.³⁹⁾

플레하노프의 이러한 흑백론적 공격에 대해 베른슈타인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진영 내에 자기의 이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음을 지적하며 응수했다. 사실 1898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창당대회를 위한 선언문을 작성했던 스트루베와 그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많은 지식인 출신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전망과 방법에 대해 베른슈타인과 매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으며 플레하노프와 <노동의 해방>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진영 내에서도 고립되어감을 느끼고 있었다. 플레하노프는 스트루베의 맑스주의 비평에 대해서 또다시 유물론을 옹호하는 동시에 수정주의의 또다른 아류라고 보았던 “경제주의”에 대항해서도 자기의 “정통파” 혁명적 맑스주의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

역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프로코포비취(S.N. Prokopovich)와 쿠스코바(E.D. Kuskova)를 이론적 支柱로 하고 있던 경제주의는 사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관한 논쟁이 표면화되기 전부터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운동 내부에서 일고 있던 움직임이었다.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맑스의 이론을 강조하던 경제주의자들은 노동운동에서 주도권은 노동자들 자신에게 있어야지 지식인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고 믿었으며 노동자들은 사회민주주의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없이 경제적 권익의 확보 등 현실적 결과의 획득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는 헌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이나 사회주의적 혁명적의식의 계발이 구체적 경제적 권리의 확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다.⁴⁰⁾

노동운동 내에서 노동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강조하고, 노동자들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처지에 대한 충분한 배려없이 혁명적 인텔리겐치야가 외부에서 수입해온 추상적 이론에 대해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경제주의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한의 권익 보장이 시급하고 모든 정치 활동이 심한 통제를 받고 있던 러시아의 상황에서는 매우 강한 호소력을 가지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플레하노프가 볼 때 그것이 내포하는 위험은 그만큼 더 컸다. 그뿐더러 경제주의의 대두가 플레하노프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도전이었던 것은 그것이 한때 자기

39) 같은 책 II, p. 351.

40) E.D. Kuskova, “Credo,” *Marxism in Russia, Key Documents, 1879~1906*, Cambridge, 1983, pp. 250-251.

를 포함한 인민주의자들이 정치투쟁에 대한 경제투쟁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자기가 경멸해왔던 사람들에게 의해 <노동의 해방>이 패배당하는 듯한 수처스런 경험이었기 때문이었다.⁴¹⁾

경제주의에 대항하여 플레하노프는 사회주의가 정치투쟁을 떠나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상기시켰다. 사회주의라는 궁극적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구체적 경제적 목표 달성에의 집중은 노동자들의 기회주의적 본능에 대한 굴복이었으며 그것을 진정한 노동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맑스주의의 포기였다. 러시아의 상황에서는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경제적 요구가 종속되어야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최종적 대결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었다. 경제주의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젊은 세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론에 대해 무관심하고 실질적인 조직활동과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선동에만 치중하다가 관료주의적 조합주의에 함몰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핵심적 역할은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다시 주의깊게 공부하고 그 이론을 노동운동에 도입하는 데 있었다. 노동운동에 방향을 부여하는 중요한 일은 노동자들 자신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지도층이 담당해야 되었으며 노동자들이 조합주의 의식에만 머물게 되는 책임도 그들이 져야하는 것이었다.⁴²⁾

플레하노프는 경제주의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자발적 성향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맑스주의 이론에 밝고 투철한 혁명의식을 가진 인텔리겐치야의 계도적 역할을 크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러시아 사회민주주의가 레닌주의쪽으로 기울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었다. 레닌주의가 과연 그의 동조 없이는 러시아에 뿌리내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런 이야기지만 여기서 정면으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텔리겐치야의 역할에 대한 플레하노프의 강조가 결코 그가 혁명가로서 일생 동안 견지해온 기본적 소신, 곧 혁명의 주체는 대중이어야 된다는 생각과 자연적 전개 과정으로서의 역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야만 사회주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함이다. 수정주의와 경제주의와의 대결 과정에서 그는 자기와 입장을 같이 하는 레닌이 경제주의자들에게 보다 더 단호하게 대하지 않음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었다.⁴³⁾ 그러나 정통성에 대한 위협이 그 반대 방향에서 온다고 느꼈을 때, 곧 당의 역할이 역사의 법칙성과 대중의 자발성을 무시할 정도로 강화된다고 느꼈을 때, 플레하노프는 공격의 방향을 바꿀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에 뿌리박은 혁명의식을 가진 혁명적 엘리트의 계도적 역할과 혁명의 모체가 되어야 할 대중의 의식의 자발적 표출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는 데는 어떤 미

41) Baron, 앞 책, p.193.

42) 같은 책, pp.202-203.

43) Kolakowski, 앞 책, p.349.

리 마련된 지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멘셰비키와 볼셰비키로 분열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맑스주의의 이론적 支柱로서 독재적 권위를 고집해오던 플레하노프가 심한 동요를 보이게 된 것도 결국은 맑스주의 이론에 내재하는 바로 이러한 해석과 적용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V. 레닌과의 대립

수정주의 및 경제주의와의 대결을 통해 플레하노프가 얻어낸 가장 큰 결실은 레닌 및 그가 대표하는 러시아 내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지지의 획득이었다. 1900년 처음으로 직접 만난 플레하노프와 레닌 사이에는 처음부터 기질적인 마찰이 심했지만 맑스주의의 혁명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근본적 입장에 있어서는 견해의 일치가 있었다. 그 당시 당세력의 규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던 레닌의 노력으로 국내파 대표 레닌, 마르토프, 포트레소프와 플레하노프, 자술리취, 악셀로드를 공동 편집인으로 하는 당기관지 “불꽃”(Iskra)이 발간되기 시작했고, “새벽”(Zaria)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며 주로 이론을 다루는 두번째 간행물의 편집은 플레하노프가 거의 독점할 수 있었다. 1900년에서 1905년까지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활동은 이 두 간행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었다.

브뤼셀에서 개최될 黨大會에 대비하여 黨강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플레하노프와 레닌 사이에는 성격상의 마찰 이외에도 농민문제 및 부르조아지와의 공동전선 문제에 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념론과 자유주의 입장으로서의 전환을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던 스트루베를 레닌은 단호하게 적대시했던 반면에 플레하노프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 한 例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 프롤레타리아의 기회주의적 본능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있었으며 강력한 黨의 통합적 주도권하에서 전개되는 정치투쟁의 중요성을 믿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입장의 근본적 일치가 있었다. 따라서 플레하노프는 개회사에서 대중운동의 자발성을 黨의 의식적 활동에 종속시켜야 할 필요를 역설했다. 黨員의 자격을 규정하는 黨則 제 1조에 관한 마르토프와 레닌의 서로 다른 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플레하노프는 그 문제가 그리 중대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듯한 발언을 했으나 결국, 기회주의자들을 黨에서 배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원의 자격을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국한시키는 레닌의 案을 지지했다. 플레하노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에 관한 한 레닌은 마르토프에게 다수를 빼앗겼으나 곧 이어서 “불꽃”誌의 편집진뿐 아니라 黨중앙위원회와 黨협의회를 볼셰비키가 장악하는 데 플레하노프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당시 플레하노프의 입장은 철저하게 볼셰비키적이었다. 黨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만을 黨員으로 인정하고 중앙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중앙집권적 당 조직에 민주적 원칙이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플레하노프는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모든 민주주의 원칙은 그것 자체로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인민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라는 원칙과의 관련 속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혁명가의 말로 번역을 한다면 그것은 혁명의 성공이 최상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의 기한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혁명의 열광 속에서 인민이 훌륭한 의회——일종의 *Chambre Introuvable*——를 선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장기의회 (Long Parliament)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때엔 우리는 그것을 2년 이내가 아니라 가능하면 2주 이내에 해산시켜야 할 것입니다.⁴⁴⁾

혁명의 성공을 최상의 법으로 내세웠던 이 연설은 1917년 10월 볼셰비키의 권력장악 후에 벌어질 사태를 그대로 예언한 것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레닌주의는 플레하노프의 “정통파” 맑스주의의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플레하노프와 레닌의 협력은 그러나 볼셰비즘이 러시아 사회민주당내에서 레닌이 이끄는 독자적 노선으로 그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곧 종식되었다. 플레하노프는 黨의 분열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자기의 옛동지들에게 총뿌리를 드리낼 수는 없다고 멘셰비키의 입장으로의 자기의 전환을 감상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⁴⁵⁾ 그러나 단순한 감상주의로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강력한 黨의 주도권 행사의 필요성을 믿는 데에서 그는 레닌뿐 아니라 대다수의 러시아 사회민주당원들과 견해를 같이 했지만 마르토프와 레닌 사이에 黨조직 및 혁명전략에 관해 벌어졌던 견해 차이가 자기가 처음 생각했듯이 단순히 黨조직과 운영상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혁명의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黨의 재통합에 대해 그는 희망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기반 위에서 새 출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당내에서 일었을 때 플레하노프는 레닌과 함께 레닌이 “清算主義”라고 매도하는 그 입장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볼셰비키에 대한 그의 비판도 격렬해졌다.

경제주의자들에 대한 그의 비판의 핵심은 그들이 대중의 자발성을 지나치게 존중한 나머지 의식적, 정치적 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사회주의의 수립이라는 목적의식을 상실했다는 데 있었다. 이제 그는 그 반대의 결합, 곧 소수의 의지적 활동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역사발전의 자연적 법칙에 대한 무시, 곧 이전에 인민주의의 테러주의파에서 그가 이미 마주쳤던 적이 있던 블랑키주의와 자코뱅주의를 볼셰비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플레하노프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었다.⁴⁶⁾ 모든 정치적 주도권을 노동계급 대신에 지식인 출신 직업적 혁명가들이 잡게 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주체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었다. 노동계급이

44) Baron, 앞 책, p. 242.

45) 같은 책, p. 246.

46) 같은 책, p. 248.

스스로는 사회주의 의식을 발달시킬 수 없으며 지식인들의 작업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레닌의 발상은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맑스주의 기본이론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플레하노프는 경제주의를 비판할 때 바로 자신이 사용했던 그 논지를 이제 공박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농민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부르조아 혁명에 뒤이어 곧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독재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레닌의 새로운 입장이 플레하노프에게는 특히 맑스주의로부터의 이탈을 뜻했다. 그는 혁명적 동맹세력으로서 농민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1905년 혁명의 실패 이후로도 계속 프롤레타리아는 민주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르조아지와 협동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견해를 버리지 않았다. 멘셰비키의 입장에 더 가까웠던 그는 러시아에서 전체체제가 완전히 타도되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지와 최종적 대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일이 요청된다는 각오를 하며, 러시아도 결국 서구와 같은 길을 걸어서만 사회주의에 도달하게 된다는 서구주의적 발상을 끝내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플레하노프는 인민주의나 수정주의와 마찬가지로 볼셰비즘도 철학적 기저에서부터 맑스주의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그는 보그다노프(Aleksandr Aleksandrovich Bogdanov, 1873~1928, Malinovsky의 필명) 등 볼셰비키들이 인간의 오성에 능동적 기능을 인정하는 경험비판론에 심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경우 플레하노프의 입장은 역시 경험비판론을 공격하고 있던 레닌의 입장과 가까운 것이었다. 볼셰비즘과 멘셰비즘간의 차이는 전략상의 차이였지 철학적 기반의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수립하고 인민주의, 수정주의, 경제주의 등의 도전에 맞서 혁명적 맑스주의의 정통성을 수호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플레하노프의 공헌을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한 사람이 레닌이었다. 그러나 플레하노프는 자기 자신이 평생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볼셰비키의 혁명 공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자기가 이상으로 그려왔던 사회주의가 아닐 것이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가 유럽식 민주적 사회주의를 러시아의 이상으로 삼는 유토피아주의에 빠졌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맑스주의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는 결국 볼셰비즘을 맑스주의로부터의 이탈로 설명함으로써 러시아의 현실을 직면하지 않은 채 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이상 속에 안주해 버리는 입장을 택한 것이며 교조주의자로의 전락이 시작된 것이었다.⁴⁷⁾ 1908년에 나온 “맑스주의의 근본문제”가 이론을 다룬 주요저술로 마지막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역사에서의 지리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 이외에는 史的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그의 해석에는 “역사에 대한 단원론적 견해의 발달”의 발간 후 1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음이 나타난다. 혁명적 맑스주의의 이론적 지도자로서의 그

47) Chagin, 앞 책, p.149. Baron, 앞 책, p.275.

의 공헌은 일단락을 지은 것이었다.

VI. 플레하노프의 말년

플레하노프는 맑스주의를 혁명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철학체계로서 받아 들였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찍부터 예술과 문학평론을 통해 해석의 도구로서 史的 유물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으며 맑스주의 심미학의 초석을 마련한 사람으로서 그의 공헌도 혁명이론가로서의 공헌 못지않게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05년 혁명 이후 그는 혁명이론보다도 역사, 철학, 문학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적 저술에 주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1909년에 시작되어 3권이 완성되었던 그의 “러시아 社會思想史”는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높은 학문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예술을 보는 그의 시각에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나 마찬가지로 두가지의 서로 다른 요소가 완전히 절충되지 못한 채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난다. 플레하노프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은 史的 유물론의 견지에서 볼 때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한 형태였고 그러한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했다. 그리고 예술의 발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환경보다 사회환경이었다. 그러나 예술에서는 표현의 형식의 적절성이 이념 못지않게 중요했으며 문명이 발달할수록 생산수단이나 기술과 예술사이의 관계는 더욱 더 간접적이 되었다. 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함께 강조하는 가운데 플레하노프는 “이에로글리프” 이론을 내세움으로써 유물론적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한다.⁴⁸⁾

정치적 현실에 관한 판단에서나 마찬가지로 과거의 인물이나 문화적 업적을 평가하는 데서도 플레하노프에게는 기호나 취향과 그가 견지하고자 하던 史的 유물론의 입장 사이에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러시아 역사에 관한 그의 해석은 맑스주의 사학자였던 포크로프스카보다는 비맑스주의 사가였던 클류첸프스키에 훨씬 더 가까웠다. 말년에 이르러서 그는 맑스주의와 칸트주의의 절충가능성조차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경제주의에 대한 평가도 전과 같이 단호하게 배척적인 것은 아니었다.⁴⁹⁾ 모든 일에 관해 교조주의적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는 그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고 史的 유물론이나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그의 절대적 지지에도 知的 차원에서는 동요가 없었다.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그 체계에 대한 절대 신뢰가 차츰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1905년에서 1914년 사이 정치적으로 플레하노프는 1912년 볼셰비키와 멘셰비키의 분열이

48) Chagin, 앞 책, p. 69. Kolakowski, 앞 책, p. 346.

49) Baron, 앞 책, p. 249.

최종적이 된 후까지도 두 파가 자기의 2단계 혁명론을 지지하며 화합하기를 바라는 국제주의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그는 멘셰비키는 수정주의쪽으로, 볼셰비키는 바쿠닌주의쪽으로 자기의 정통 맑스주의로부터 이탈하고 있었던 것이라 보았으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중재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1914년 전쟁의 발발과 함께 인터내셔널이 무너지자 플레하노프는 열렬한 애국주의자가 되었다. 러시아는 침략자가 아니었으며 독일의 패배는 독일과 러시아 양쪽에서 다같이 혁명운동의 진전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므로, 계급투쟁의 중단과 애국적 단합을 위한 자기의 호소는 맑스주의자로서의 국제주의 입장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월 혁명은 그가 오래 갈망했던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러나 10월 볼셰비키의 권력장악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단계에서 이룩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외면한 성급한 처사로서 그 혁명의 성과를 무효화시키는 불상사였다. 그렇다고 그가 그 혁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 수도 없었다.⁵⁰⁾

러시아 맑스주의의 이론적 창립자 플레하노프는 자기의 서구주의적 맑스주의 혁명이론이라는 침대에 러시아의 현실이라는 체구를 맞추어 자르고자 했던 셈이었다. 史的 유물론과 변증법 유물론을 신봉하는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관념론적 오류를 범한 그가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50) 플레하노프에 대한 소련의 공식 평가에서는 이 점이 중요하게 언급된다. Chagin, 앞 책, p.159. 그리고 Plekhanov, 앞 책 I 속의 I. Fomina, "Plekhanov's Role in the Defence and Substantiation of Marxist Philosophy," p.13.

《Abstract》

G.V. Plekhanov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Russian Marxism**In-ho Lee**

Plekhanov was not only the father of social democracy in Russia but also a Marxist theoretician of international renown. Yet when the Bolsheviks came to power in October, 1917, Plekhanov found himself not among the victors. This brief essay explains this personal tragedy as a consequence of Plekhanov's acceptance of Marxism as a closed system of dialectical materialism. Plekhanov joined the revolutionary movement initially as a populist of the Bakuninist bent emphasizing the absolute requirement of mass participation in the coming socialist revolution as opposed to the Tkachevian notion of conspiratorial seizure of power. He was converted to Marxism because he saw it as a philosophical system which guaranteed the eventual victory of socialism and recognized the positive role capitalism and the bourgeoisie were to play. Although Plekhanov tried to make due allowance for the role of individual personalities in history and cautioned against excessive reliance on spontaneity of the masses, he was even more wary of any attempt to force the pace of history. Plekhanov recognized that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 followed a pattern somewhat different from what Marx had in mind, but, unlike Lenin, adamantly refused any necessity to adjust the theory to a reality vastly different from that upon which it had originally been founded. In the end, it was his dogmatic insistence upon the narrowly defined orthodoxy and the idealistic hope to fit the Russian reality into the Procrustean bed of revolutionary Marxism that proved to be Plekhanov's undoing.